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둘, 진상 규명. 셋, 국회결의 사죄. 넷, 법적 배상. 다섯, 역사교과서 기록. 여섯,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일곱, 책임자 처벌.

정대협 활동 하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합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시위는 2011년에 1000차를 맞이하였으며 지금도 여러 단체들,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정대협 활동 둘, 생존자 복지 활동

역사의 산증인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50여 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대협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상담, 인권캠프, 치유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재가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할머니 방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쉼터 '평화의 우리 집'을 운영 중입니다.

정대협 활동 셋, 국제연대 활동

국제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 단체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알리고 다시는 전시 중 성폭력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와 지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는 아시아 피해자 및 여성들과 연대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정대협 활동 넷, 박물관 운영 및 시민 캠페인

일본군성노예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다시는 인류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실시합니다. 박물관 관람 및 교육, 모임 또는 단체 방문교육을 진행하여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기획 캠페인과 전시회를 진행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 시민 들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을 원하시거나 수요시위 주관, 참석 또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전화: 02-365-4016 / 이메일: war_women@naver.com / 홈페이지 www.womenandwar.net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기금

나비기금이란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나비기금입니다. 할머니들의 송고한 뜻에 따라 나비기금을 모아서 콩고, 베트남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여정 1. 콩고

나비기금을 전달한 첫 번째 여성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남 키부 지역에 살고 있는 레베카 마시카 카츄바(Rebecca Masika Katsuva)입니다. 그녀는 콩고의 긴 내전 중 1998년, 당시 9살과 13살이던 그녀의 딸들과 함께 군인들에게 강간당했고 남편마저 살해당했지만, 고통 속에 주저앉지 않고 다음 해 자신과 같은 강간 피해 여성들, 강제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고아들을 입양해 보살피는 '리스닝 하우스(Listening House)'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일을 돕던 어머니마저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지만 마시카는 여전히 계속되는 공격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용기와 노력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 회복을 요구해온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나비의 여정 2. 베트남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이 기간 동안 한국군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전쟁 피해자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피해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비기금은 이제는 할머니의 나이가 된 한국군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듯 한국 역시 베트남에서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또 하나의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비기금 참여방법

하나,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기부하기!
둘,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기!
셋, CMS 후원하기!

*나비기금 관련 문의 및 참여 신청

전화: 02-365-4016 / 팩스: 02-365-4017 / 이메일: war_women@naver.com

*나비기금에 기부하여 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자님의 성함,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이메일(war_women@naver.com)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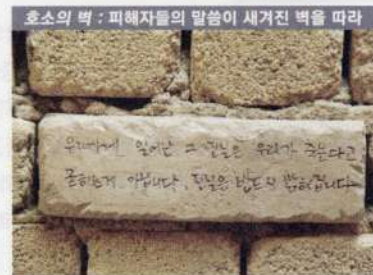
인권과 평화를 만나는 곳,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모았고 할머니들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주춧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역사와 함께 지구촌 곳곳의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석각 : 거친 돌길을 밟으며 역사속으로



호소의 벽 : 피해자들의 마음이 새겨진 벽을 따라



추모관 :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며

살짜к 잊보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주요 관람 여정



세계 여성폭력 상설관/기획전시관 : 지구촌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역사관/운동사관/생애관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전말과 또 하나의 평화비를 만나다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참여하고 행동하는 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박물관은 여기에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9-13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이용)
전화 02-392-5252 홈페이지 www.womenandwar.net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 운동 함께 참여해요!

일본은 193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 행한 아시아·태평양 침략전쟁에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전쟁터로 끌고 다니며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소녀와 여성들은 전쟁터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커녕 일본의 범죄은폐와 왜곡 등으로 침묵을 강요당한 채 약 70년을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여성운동에 힘입어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일본국가의 범죄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일본정부에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는 국제 인권기구 및 세계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인류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하루 속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여 인권을 회복시키고, 전쟁이나 내전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조직적 강간 등의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억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실시하라
- 한국정부 등 피해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라
-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는 일본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준수하여 즉각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라!

“세계가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에 참여하세요!

온라인 서명참여 페이지 QR코드 →
PC버전 온라인 서명페이지에서 다국어 오프라인 서명지, 배너, 포스터 소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개인 및 단체에서 서명을 모아 전달해주거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서명운동을 알려주세요!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